

문화전당내 5·18 보존건물 활용방안 첫 전문가 포럼

“5·18 겪지 않은 세대도 사업 주체돼야”

10월까지 10차례 토론 ... 연말 확정후 내년 리모델링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5·18 보존 건물 리모델링으로 조성될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운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6일 오후 광주YMCA 백제실에서 첫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추진단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5일까지 7차례의 전문가 포럼, 2차례의 시민토론회, 1차례의 국제워크숍을 통해 민주인권평화기념관의 운영 골격을 마련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날 “지역 내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도청 본관 및 별관, 민원실, 상무관 등 7개 보존 건물의 운영 방안을 찾고 연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인권평화기념관-누가, 무엇을,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첫 포럼은 전문가 발제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첫 발제를 맡은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5·18이 피해자 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참된 의미에서 기념되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며, “5·18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물론 다른 지역 사람들도 주체가 돼 5·18 기념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5·18의 위치를 정의하며, 공간적 의미로 연관성을 지니는 기념관의 기념대상을 설정하고, “전시·연구·교육·교류를 통해 5·18의 가치를 민주·인권·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

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주 동신대 공연전시기획과 교수는 “기념관의 전시가 사회적 맥락을 제거함으로써 신화화되거나, 교육과의 연관성 속에서 미래세대에게 ‘문화적 기억’의 문제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정원규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5·18이 온 국민, 나아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인들에게 현재진행형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광주의 모형을 보존·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5·18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

들이 민주항쟁의 주체로 행동하게 된 동인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생생한 ‘마음’을 보여줄 수 전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차 포럼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전남대 인문대학에서 ‘민주인권평화기념관-비교사례를 통한 기념관의 위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문태 광주시장이 6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당직자들을 초청해 민선 5기 1년 동안의 시정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행복지수’ 반박에 이용섭 재반박

“지역발전 저해” 우려 목소리 높다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구) 의원이 지난 5일 배포한 ‘광주 1년간 행복지수가 하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놓고 광주시와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는 등 마찰을 빚으면서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선 5기 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 2012년 국비예산 확보에 공동보조에 나서야 할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가 오히려 지역화합이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

고 “권위 있는 연구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보도자료가 나가자마자 광주시가 희한하고 가치없는 보도자료라고 즉각 폄하해 나선 것은 적반하장식 대응으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지자체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전날 “현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의 경제지행복지수는 2.8점 하락한 반면 광주시는 6.7점이거나 하락했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광주시가 “한 민간기구의 자료를 인용, 지난 1년 광주의 행복지

수가 크게 하락했다는 이용섭 의원 보도자료는 강 건너 불 구경 식의 문제제기로 과연 광주지역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아쉽다”며 반박하자 다시 재반박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광주시의 현안으로 부각된 광주U대회 수령장 입지 문제의 진원지인 수완지구가 이 의원의 지역구인 광산읍인데다 ‘경제적 행복지수 하락’에 대한 보도자료도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지향하고 있는 민선 5기 1년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지난해 민주당 광주

시장 경선에서 낯선 대립양상을 보였던 이 의원과 강 시장의 ‘감정의 골’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 당직자 초청 시정 설명회에서도 이러한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의 감정대립이 도마에 올랐다. 한 당직자는 강 시장에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강 시장이 아우르고 안고 가야하며 가능한 지역원이나 지역위원을 지적을 받아들이며 당의 발전, 지역 발전에 노력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 의원 보도자료에 대해서 노코멘트했으나 이를 살펴본 공직자들이 보고서 내 발전가능성 부분은 이에 제외하고 안 좋은 부분만 부각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 ‘무돌길’ 담양구간 16일 개방

남면 독수정~경상리정자~무동리정자간 9km

무등산 자락을 한바퀴 도는 무돌길 담양구간이 오는 16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무돌길 담양구간(15길 중 제5길과 제6길)은 담양군 남면 독수정~경상리정자~무동리정자에 이르는 9km의 코스로, 성인 기준 3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이날 오전 10시 담양군 남면 남면초교 운동장에서 개방 기념식을 갖고 담양군 남면 독수정~경상리 노거수까지 4km 구간에서 걷기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담양구간인 제5길과 제6길에는 16세기 호남 사람의 문화활동의 성격과는 다른 독수정원림, 울창한 소나무 숲과 대금길을 따라 넘사름을 통해 전통마을을 잇는 무돌길 노선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노선은 북구 각화동~청옥동~충효동을 거쳐 담양 남면~화순 이서~안양산휴양림~동구 용연마을~광주생태하천길~푸른길공원에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고지도 등 문헌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 전통마을을 잇는 무돌길 노선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노선은 북구 각화동~청옥동~충효동을 거쳐 담양 남면~화순 이서~안양산휴양림~동구 용연마을~광주생태하천길~푸른길공원에 이르는 모두 15개 코스, 50km(18시간 소요)에 달한다. 이 중 동구 구간(광주역 증용삼거리~화순 너와나 목장, 12km)과 북구 구간(각화중학교~담양 독수정, 12km)은 지난해 10월 이미 개방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호 독 높이기 즉각 중단해야”

민주당 광주시당

민주당 광주시당은 6일 성명을 내고 “농어촌공사는 주민과 갈등을 조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추진하는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호 독 높이는 4대 강 사업 하나로 준설과 보 건설이 필연적으로 불가피 수질악화를 감추려는 희석용 물 확보 대책”이라며 “특히 15~16세기 한국의 유일한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 역사문화유산을 훼손하며, 150여

억을 들여 조성한 호수생태공원을 수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어 “광주호 독 높이기 관련 자료 공개를 몇 번에 걸쳐 요구했으나 농어촌공사는 지역을 대표한다는 몇 사람에게만 시골대 이션을 공개하고 그들을 회유 설득했다”라며 “뒤에 숨어서 지역민들을 선동하고 갈등만 유발하는 비겁한 행태를 멈추고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현재 “기초의원 득표율 10%미만 기탁금 미반환 합헌”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모씨 15명이 ‘공직선거법 57조 1항1호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일부 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6일 밝혔다. 현재는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도 기탁금 반환 기준을 유효투표 총수로 정함으로써 후보자 난립을 방지해 선거사무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인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재판관 이강국·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은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1인을 선출하는 다른 선거와 달리 중선거구제를 채택하

고 있으므로 당선에 필요한 유효 득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필연적인데도 동일한 반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57조 1항1호에 따르면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기탁금 전액, 10% 이상 ~15% 미만이면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한다. 10% 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연합뉴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제3회 오월포럼 시민대상식

오월포럼 시민대상은 각 분야에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수여하는 가장 의미 있는 격려와 찬사입니다.

· 일시 : 2011년 7월 10일(오후2시)

· 장소 : 광주디자인센터 대강당(첨단지구)

· 주최 : 오·월·포·럼 · 주관 : RDPI 지역발전정책연구원 · 후원 : 마티비 올림

시민대상 추천 수상자

장학분야 정동재(전남문화관광부장관)	사회분야 최병문 대표 (우리말방역연구소대표)	언론분야 송옥백 (CMR광주방송 제작팀장)	문화분야 김영 권(영주대표)	예술분야 서우 정(가수)	지역분야 고현석(전국성군수)	체육분야 김승남(진흥중야구감독)
------------------------	-----------------------------	----------------------------	--------------------	------------------	--------------------	----------------------